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5. 2 | Vol. 247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당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of 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쏘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 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윤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과좌 법회도량 법당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범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십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모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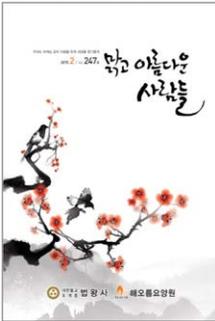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5
2

Vol. 247호



- 04 깨침의 향기
불자의 기본자세를
바로 세우자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수행(修行)의 올바른 목적의식(I) · 실상 주지스님
- 10 불교상징의 세계
계단과 소맷돌 · 조명래
- 14 법왕사 신도광장
연화장, 향수의 바다에 핀 꽃송이 · 승혜스님
- 18 명찰순례
최초의 비구니 강원 공주 계룡산 동학사
- 22 법회이야기 | 입춘기도와 삼재풀이
온갖 액운 막아 가정의 복덕 기리자
- 24 법왕사소식
- 26 법왕사게시판
- 28 해오름소식
- 29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수성 라 00017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59(서기 2015)년 2월 01일 발행 | 통권_247호 | 종무소_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승혜, 자행, 강선옥, 강선희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자의 기본자세를 바로 세우자

원공당 정무 대종사



예배를 즐겨하면 할수록
마음이 맑아져
진리의 문에 보다
가까이 가게 될 뿐 아니라
아만과 아집을 버리는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불제자가 행하여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공덕이 있는 일이라면 도반과 함께 행하고, 선지식을 찾아 좋은 법문을 늘 청하여 듣고 일체중생의 성불을 발원하는 것은 우리 불제자들이 늘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수행방법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禮拜)하는 공덕입니다.

예배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를 생각하며 직접 허리를 굽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겨하면 할수록 마음이 맑아져 진리의 문에 보다 가까이 가게 될 뿐 아니라 아만(我慢)과 아집(我執)을 버리는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보에게 예배했던 그 마음으로 일체중생에게도 똑같이 예경할 수 있다면 하심(下心)과 공경(恭敬)의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는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는 공덕입니다.

음식이나 꽃, 과일 등으로 공양을 올릴 때에는 아까워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을 버리고 지극 정성으로 올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으로 공양을 올린다 해도 그 동기가 좋지 못하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업만 지을 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공부가 부족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리다보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조차도 조건을 붙이고 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장사꾼이 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

곤 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공양이라야 참된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야 공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마음을 버리고, 마땅히 번뇌 없는 진실한 자기 마음이 가장 큰 공양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보시(布施)는 공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삼보께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으로 일체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보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보시는 ‘베풀면서도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것’으로 이를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라고 합니다. 또한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하여 ‘베푸는 자’, ‘베풀을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모두가 깨끗하여야 참된 보시가 되며 이는 공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참회(懺悔)하는 공덕입니다.

전생과 금생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나마 조금 있는 지혜마저 잃게 되는 것은 모두 지난날에 탐(貪), 진(瞋), 치(癡) 삼독(三毒)으로 지은 죄업 때문입니다. 다생 겁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지 않고서는 기도와 참선, 염불 등의 수행을 아무리 한다 해도 무공덕(無功德)에 그칠 뿐입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의 출발점은 바로 다생 겁을 통해 자

신이 지어 온 모든 죄업에 대한 참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알았을 때에는 참회를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를 때에는 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수희하는 공덕입니다.

수희(隨喜)는 남의 좋은 일을 보고, 따라 좋아하기를 마치 자기의 좋은 일과 같이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는 불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일체중생들이 행하는 선행을 보고 함께 찬탄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불자라면
물심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더 찾아야 합니다.
예배와 공양,
참회, 수희, 권청을
생활화하여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면 그 공덕이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희가 가장 쉬울 것 같은 수행 방법이지만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기는 쉬워도 진실로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배움을 청하는 공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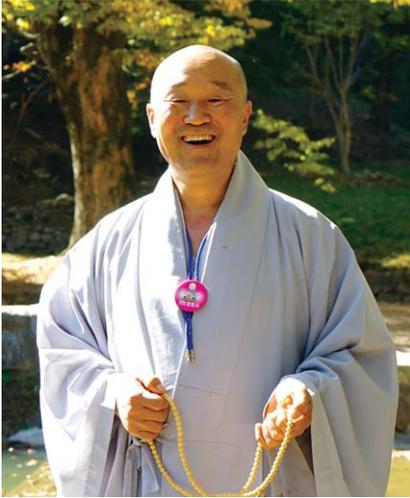
우리 불자들의 병폐 중의 병폐라하면 너무 쉽게 불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어렵고 힘들게 배워야만 자기 것이 되는데 너무 쉽게 배우려고 하다보니 포기도 쉽게 하고 좌절도 쉽게 하여 도무지 공부다운 공부는 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을 담은 몸짓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행동과 자세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물심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더 찾아야 합니다. 예배(禮拜)와 공양(供養), 참회(懺悔), 수희(隨喜), 권청(勸請)을 생활화하여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천년풍파를 견딜 수 있듯이 기본이 잘 갖추어진 불자라야 참된 수행을 통해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행(修行)의 올바른 목적의식 (I)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공부, 즉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흔히 '수행(修行)'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한자로 풀어보면 닦을 수(修), 행할 행(行)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행실을 닦는다'는 뜻이 되고 불교적 의미로는 '마음을 닦아 일상행동을 바르게 하다'가 됩니다.

수행의 핵심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걸레로 때를 닦아내듯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개조(改造)한다, 변화(變化)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내부를 개조하거나 자기 외부의 세계를 개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종교를 잘못 생각하면 죽은 후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거나 또는 현생에 착한 일을 해서 내생에 복을 받아 잘살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런 것은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핵심은 현실의 문제에 있습니다.

신이 있느냐 또는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행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법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느냐 참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일 때 수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도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자각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수행의 의미가 있지만 부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는 주종의 관계에서 엎드리는 절이란 결국 수행의 본뜻과는 멀어지고 자신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수행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식이든 참선의 형식이든 염불의 형식이든 수행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통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부자유에서 자유로, 종속에서 주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목표를 현실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의 공덕(功德)입니다.

이같은 수행이 부처님이나 혹은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현실 생활 속에 사는 우리들 누구나 실천 가능한 것이요, 현실 고통의 근원적 치유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같은 수행을 통해서 고통과 부자유, 종속의 삶을 벗어나 더없이 행복한 주체적 자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으며, 또 실

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아상(我相)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利他行)이란 평범한 사람은 감히 행할 수 없는 것이요, 뛰어난 수행과 덕을 겸비한 보살 같은 위대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속단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타행을 행하는 보살은 경전에 나오는 특정 인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으로 괴롭고 답답해하던 평범한 사람이 잘못된 인간관계에 얽매어 사는 자신의 인생이 본래 삶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임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아, 진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을 찾아 그 길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보살인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즉 남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이롭게 하는 삶이 이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수행이란, 아무리 이타행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자신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하는 길을 몸소 실천하는 생활이야말로 곧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계단과 소맷돌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찰은 산에 있어 일주문에서 금당(金堂)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거쳐야 하고, 또 금당을 비롯한 전각들도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는 곳이 대부분이다. 계단은 층위(層位)가 다른 상하의 공간을 편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시설물이다. 그러나 사찰에 있는 계단은 이러한 편의성 이외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계단은 중생과 부처를 연결하는 통로로

수행의 과정이자 완성을 상징한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그리고 연화교와 칠보교는 계단이 수행의 완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중생과 부처,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이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단임에도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라 불렀던 것이다. 그 가운데 금당을 오르내리는 계단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일반적으로

중앙의 계단은 고승대덕이나 주지스님이 출입하였고, 그 외의 스님이나 신도들은 좌우측에 있는 계단을 이용했다. 이러한 경향은 궁궐이나 유교의 중요 건축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앙은 좌우보다 높은 격을 가지고 있다.

중앙의 계단은 금당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불국사 대웅전과 극락전의 중앙계단의 좌우측에는 한복의 소매 선과 같은 ‘소맷돌’로 깔끔하게 장식했다. 불국사에서 처음 도입된 소맷돌은 이후에 벽사와 외호를 상징하는 사자, 귀면, 용 등의 동물상이 조형되기도 하였고, 또 금당을 천상의 누각으로 상징하기 위해 구름 문양을 새겨 놓기도 하였다.

사자상(獅子像)

부산 범어사 대웅전 앞에는 3차선 18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1904년경에 촬영한 사진에는 중앙계단만이 있어 좌우의 계단은 훗날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계단의 첫 계단 좌우에 귀가 축 처진 사자상이 머리를 계단 안쪽으로 튼 채로 배치되어 있다. 몸통은 생략하고 두 앞발과 머리 부분만 표현된 이 사자상은 굽은 털실을 꼬아 붙인 것 같은 눈썹과 갈기, 송곳니가 드러난 큰 입, 그리고 축 처진 귀가 특징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사자가 아니라 신격화한 당사자(唐獅子) 혹은 산에

로서 외호를 상징하고 있다. 사자상이 머리를 계단 안쪽으로 약간 들고 있는 모습은 금당에 모셔진 부처님에 대한 수호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모습은 협시보살이 본존불 방향으로 몸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계단과 천안 광덕사 대웅전 계단 등에서도 사자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용두(龍頭)

여수 흥국사 대웅전 앞 계단의 소맷돌에는 네 마리의 용두가 조각되어 있다. 네 마리 용은 모두 머리를 세우고 앞으로 향해 나가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세 마리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불법승 삼보의 상징으로 보인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계단에는 삼단으로 쌓은 장대석 소맷돌 아래쪽에 용두가 조각되어 있는데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굽은 선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속초 신흥사 극락전 계단의 소맷돌에는 앞부분에 용두가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어 생동감이 느껴진다. 또한 소맷돌에는 용두 외에 삼태극, 귀면,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문양이 하나의 소맷돌에 새겨진 예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도 대적사 극락전 계단의 소맷돌에는 우측에 소용돌이치는 와문(渦紋)이 새겨



해인사 소맷돌



합천 영암사지 소맷돌

져 있고 좌측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그린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가 새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소맷돌 장식 조각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이 상례인데 대적사처럼 좌우에 와문과 용비어천도가 조각되어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구름 문양

구름 문양을 계단 소맷돌 장식에 많이 조각하는 이유는 ‘없다가도 생기고 사라졌다가도 나타나는 구름의 속성’이 불교의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와 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름은 천상을 상징하고 있어 금당을 상서로운 영역으로 상징화하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구름 문양에는 점운(點雲), 비운(飛雲), 유운(流雲), 입체적으로 생동감이 있게 솟아오른 뿔구름인 용운(聳雲), 십자운(十字雲)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구름 문양은 나선형이 하나로 영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뿔부분을 운두(韻頭)라 하고 날개의 꼬리부분을 운미(雲尾)라고 한다. 구름 문양은 양평 용문사 대웅전 계단과 양주 회암사지 계단, 그리고 안성 칠장사 대웅전 계단의 소맷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극 문양

태극은 계단의 소맷돌에 구름 문양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다. 태극 문양에는 이태극(二太極), 삼태극(三太極), 사태극(四太極) 문양이 있는데 이를 일러 이과문(二巴紋), 삼과문(三巴紋), 사과문(四巴紋)이라고도 한다. 태극 문양은 대체로 소맷돌 앞쪽에 북모양으로 생긴 부분에 선각(線刻)된다. 태극 문양은 양주 회암사지 계단과 양평 용문사 계단, 남양주 봉선사 대웅전 계단의 소맷돌에 새겨져 있다.

유교 성리학에서는 천지가 하나의 태극이며 만물 하나하나가 모두 태극의 원만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며, 불교에서는 하늘의 달이 천강(千江)에 비치는 것과 같이



청평사 소맷돌 태극문



범어사 대웅전 소맷돌

불성은 모든 중생이 차별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원융무애(圓融無滯)한 원만성을 구비한 태극은 불교적 진리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연꽃 문양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소맷돌 장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양산 통도사 적멸보궁의 동쪽 계단과 남쪽 계단의 소맷돌에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동쪽 계단은 만개한 연꽃을 연줄기가 한 바퀴 돌아 소맷돌 상부로 이어져 부드러운 외곽선을 만들고 있다. 남쪽 계단은 연줄기가 없는 대신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불국사의 연화교에는 소맷돌이 아닌 계단에 연꽃잎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꽃잎은 법장비구의 사십팔대원 가운데 하나인 ‘십년왕생(十念往生)’과 더불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상징한다.

가룽빈가

합천 영암사지 금당지 계단의 소맷돌은 가룽빈가를 입체적으로 조각하였다. 석재를 입체적으로 조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지 치밀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맷돌을 입체적으로 조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가룽빈가는 불단이나 부도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니 계단의 소맷돌에 조각된 예는 영암사지의 경우가 유일하다. 따라서 가룽빈가 조각은 계단위에 있는 금당을 천상의 묘음(妙音)이 울려 퍼지는 환상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찰 장식은 불교 교의와 불법의 수호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맷돌의 앞쪽에 조각된 사자와 용 등은 불법의 수호의지가 담겨있고, 구름 문양은 불교의 공사상을 나타낸 것이며, 연꽃 문양은 불교의 교의를 상징하고 있다. 비록 금당 옆에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다른 화려한 장식과 다를 바가 없다.

신장회 사공순옥 회장

연화장, 향수의 바다에 핀 꽃송이

승혜스님 / 법왕사



보성 대원사 뒷산에 토굴이 보였습니다. 어 느 신도님의 안내로 그 토굴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출타하셨고 마당에 세숫대야가 덩그렇게 놓인 것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는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만추의 계절, 산, 마당에 서서 방문이 활짝 열린 방을 쳐다보는데 벽에 휘날려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린다면 내가 먼저 쓰러져 놓고, 누가 내 뺨에 침을 뱉으면 마를 때까지 그냥 두라.”

한참 그 자리에서 글귀에 담긴 낮은 마음을 살피며 어쩐지 감동의 눈물이 비칩니다. 그 시절, 설명하지 못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던 때, 저 마음을 배우자고 스스로 다짐했고 주위 벼들에게 자주 전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음 자료를 접했습니다.

당나라 측천무후 때 누후덕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 형은 누사덕이다. 한 번은 후덕이 형에게 말했다.

“저는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묵묵히 닦을 뿐입니다.”

“네 말이 나를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남이 네게 침을 뱉었다면 필시 너에게 화가 난 것이다. 그런데 그 침을 닦으면 그 화를 더욱 돋우는 것이 된다. 그냥 마르도록 놔둬야 한다.”

티브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은 쉽게 거짓

말을 합니다. 악역을 담당한 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착하고 성실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마저 때로 선의라는 명분으로 슬쩍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십니다.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수치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자가 짓지 못할 악은 없다. 그러므로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했다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야 한다.〉

불교에서 금지하는 말의 행위는 거짓말, 쓸데없는 말, 이간질, 욕설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었더라도 상냥함과 겸손함과 적정함을 유지하고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법을 존중하는 까닭에 말을 잘 하는 것이며 때를 맞추고 사실대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익을 갖추고 우정의 마음으로 말을 잘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새깁니다.

착한 일의 결과로 착한 과보를 받는 것을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겠지요. 법왕사 백고죄법회 법사님을 시봉하려고 절에 오던 길에 사공순옥 신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폐차를 시켰을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정작 신도님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장 법왕사 행사에 동참하여 할 일을 다 했었다는 얘기에 가피를 실감합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불공행사에 사회를 맡는 신장회장 사공순옥 신도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법왕사에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큰 오빠와 올케 언니 부부입니다. 천막법당 시절부터 오빠 내외가 법왕사를 다녔는데 오빠가 절실한 불자입니다. 지금은 먼 데 이사를 가버린 탓에 올케 언니가 말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고모가 법왕사에 다 하세요.”

그런데 당시에는 법회나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였어요. 점심공양을 안 하고 와버리기도 했으니까요. 신도증을 발급받고 불자로서 자세를 갖춘 것은 주지스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들로 막내인 오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을 때도 주지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신세를 졌기에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가톨릭 신자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성당의 교우들이 찾아와 살펴주더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영향은 받았지만 흐지부지되다시피 성당에서 세례명을 받던 가톨릭 신자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팔공산 ‘갓바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혼자 ‘갓바위’ 부처님께 참배를 드렸습니다. 절하는 방법도 몰랐고 불교를 몰랐지만 절에 가면 마음이 포근한 것을 느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갓바위’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별세하실 쯤에 불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올케 언니가 권유도 했고 옆에서 조언을 많이 했더니 종교를 바꾸시더군요. 어머니와 언니가 개종한 것과 함께 보람을 얻은 것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천수경의 대다라니를 사경하면서 원을 세웠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여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대구불교대학 2년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일년에 두 번 철야정진과 더불어서 반야심경 일 자 일 배를 마쳤습니다. 과연 해낼까를 의문하면서 반야심경 한 자 쓰고 절을 한 번 했습니다. 환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때 신심이 돈독해졌습니다. 다 마치고나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불교대학을 수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교사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던 선배들이 자만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고 과연 이 공부를 어디까지 성취해야 겸손함과 미덕을 갖춘 불자가 될까 싶은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출가제자와 재가신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도 물에 따로 뜨는 기름이 아니라,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는 사부대중이 되라던 부처님 당부를 잘 실천하는 불교집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법왕사백고좌법회의 법사스님들 시봉

을 2년 동안 맡았습니다. 시봉하던 마지막 날, 상동교를 넘어오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이 두 번 접혔던 큰 사고에 모두들 “이 차 운전자는 죽었겠다.”고 수군거리더군요. 차를 보내놓고 바로 범왕사에 도착하여 법사님 시봉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큰 스님들 기를 받아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여겼습니다. 평소에 관세음정근을 하는데 범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타난 내용을 승혜스님이 거론하시네요.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쭙었다.

* 세존이시여, 구도자 관세음보살은 어떤 원인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 무진의 보살이여, 만약 헤아리지 못하는 백 천만 억 중생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을 때, 이 구도자 관세음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게 된다. 검은 구름, 천둥 일고 번개 치고 우박과 소나기가 쏟아져서 퍼붓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 그 힘으로 먹구름이 걷히고 흩어진 다. 어려운 고난으로 괴로움을 받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 그 힘으로 인간 세상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얻는 길에 든다. 뛰어난 앎과 지혜로 지방세계 모든 곳에 여러

몸으로 가지가지 악한 길에서 삼악도와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신장회장 소임을 맡은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범왕사불교대학 제1기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사님은 자연스럽게 사찰을 방문합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원택스님의 주최로 성철스님추모 행사에 사찰순례를 함께 했고 설악산 봉정암을 두 번 참배 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주제에 대하여 제 마음을 환하게 비우게끔 부처님께 그 방법을 질문해봅니다. 깨달음을 발원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에 범왕사 신도들과 거사님의 결속이 단단해지길 기원합니다.

최초의 비구니 강원 공주 계룡산 동학사

산의 생김새가 마치 '닭 벼슬을 쓴 웅' 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계룡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동학사는 갑사, 신원사와 함께 계룡산을 대표하는 3대 사찰이다. 천년고찰 '동학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 강원으로서, 15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량이다.



대웅전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인 동학사는 신라시대에 상원 조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한 곳에 제자 회의화상이 724년(신라 성덕왕 23) 절을 창건해 청량사라 하였다고 한다. 고려 920년(태조 3)에 왕명을 받아 도선 국사가 중창하였다. 국사가 원당을 건립하고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해서 태조의 원당이라 불렀는데, 이 원당은 조선 초에 소각되었다.

936년 신라가 망하자 고려의 개국공신이 된 대승관 유거달(柳車達)이 이곳에 신라의 시조와 충신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사당을 짓고 동계사(東鷄士)라 했다. 그 뒤 사찰을 확장한 뒤 절 이름도 동학사(東鶴寺)로 바꿨다.

조선 태조 3년(1394)에 고려의 유신 야은 길재(吉再)가 동계사 전에 단을 설치하여 포은 정몽주를 위해 제사를 지냈고 5년 후인 1399년에 유방택이 목은 이색을 모시고, 후에 야은도 이곳에 모셨다. 다음해에 이정환이 공주목사로 와서 단의 이름을 삼은단(三隱壇)이라 하고, 또 전각을 지어 삼은각(三隱閣)이라 하였다.

세조 3년(1457)에는 매월당 김시습이 사



충남 문화재 자료 제58호 삼층석탑

육신의 초혼제를 지내고 단종의 제단을 증설했다. 다음해에 우연히 이곳을 들른 세조가 그러한 내력을 전해 듣고 자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280명의 이름을 비단에 써주면서 초혼제를 지내게 한 뒤 초혼각(招魂閣)을 짓게 하고 인신(印信)과 토지를 하사했다고 한다. 영조 4년(1728) 때 전소되어 80여년 동안 빈 절터인 채로 내려오다 순조 14년(1814) 금봉화상이 옛 원당 처에 실상암을 짓고 절을 중건하였다고 한다. 1904년 초혼각은 숙모전(肅慕殿)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으로 절의 건물은 전부 불타 없어졌다가 1960년 이후 서서히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학사에는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다. 바로 두 기둥만 우뚝하게 솟은 홍삼문이다. 원래 홍삼문은 궁궐, 관아, 능, 묘, 원 앞에 세우는 문으로 사



일주문

찰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사에 홍살문이 있는 것은 동학사는 사찰이면서도 사찰 내 동계사, 삼은각, 숙모전 등 사당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웅전에 모신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보물 제1719호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 발원문을 보면 1606년 제작된 것으로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삼성각(충남 문화재자료 제57호)은 칠성, 산신, 독성의 삼성을 모신 곳이다. 가운데 칠성, 왼쪽에 산신, 오른쪽에 독성탱화를 모셨다. 불교 이외의 신앙 대상을 모셨으므로 건물이름을 전이라 하

지 않고 각이라 하였다.

충남 문화재자료 제58호인 삼층석탑은 남매탑이 있는 청량사지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1층 기단 위로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인데, 2008년에 복원한 것이다. 탑신부의 3층 몸돌은 없어진 상태이다. 기단의 맨 윗돌은 탑신의 지붕돌과 같이 윗면에 비스듬한 경사를 두었다. 탑신의 각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본떠 새겼으며, 적당한 경사가 흐르는 지붕돌은 밑면에 5단씩의 받침을 새겨 놓았다. 규모가 작은 탑으로, 통일신라 선덕왕 23년(723) 동학사를 처음 지을 때 함께 세워두었다고 하나, 탑의 양식이나 다듬은 솜씨로 보아 고

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동학사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길에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남매탑이 있다. 7층 석탑과 5층 석탑 2기가 나란히 서 있는 남매탑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는 설과 12세기쯤 건립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탑에 얽힌 전설이 아름답다.

이곳에 있는 작은 암자에는 홀로 수도를 하시던 스님 한 분이 계셨다. 스님은 어느 날 산중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 목에는 뼈가 걸려있었다. 스님은 가시를 빼주었고 호랑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호랑이는 산중에서 혼자 계시는 스님에게 정인을 만들어주고 싶어 예쁜 처자를 암자로 데리고 왔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수도에만 정진하는 스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 처자를 산 아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혼례를 치렀던 그 처자의 부모는 스님과의 인연이 남다른 것을 알고 부부의 인연을 맺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스님은 고심 끝에 그 처자와 의남매를 맺었다. 결국 부부가 아닌 오누이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비구, 비구니로 함께 수행을 하다 한날 한시에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이 열반에 들자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리기 위해서 석탑



보물 제1719호인 석조여래삼불좌상

2기를 쌓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남매탑이다.

동학사는 계룡산의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한다. 더불어 봄이면 벚꽃 터널이, 여름이면 신록이, 가을이면 감사 못지 않은 고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동학사 가는 길

승용차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로 접어들어 유성나들목에서 내린다. 유성나들목에서 박정자삼거리를 거쳐 좌회전하면 동학사 입구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동학사 방향으로 우측길을 따라가면 동학사가 나온다.

온갖 액운 막아 가정의 복덕 기리자



입춘(立春)은 우리 민족과 매우 친근한 절기이다.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이다. 음력으로는 정월 절기이며 양력으로는 2월 4일이다. 입춘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여는 절기,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라는 의미도 함께 깃들여 있다. 그러므로 예부터 원화소복(遠禍召福)을 기원하는 의미로 입춘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입춘 전날이 절분(節分)인데 이것은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며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밤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겨왔다. 한 해 동안 액(厄)을 면한다고 하여 밤중에 남몰래 개울에 징검다리를 놓거나, 가파른 고갯길을 닦아 놓았는데, 이는 우리 불교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공덕이 전

통 미풍양속과 어울려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후여서 입춘방(立春榜)이나 첩(帖)을 붙이는 등 여러 행사가 열린다. 입춘시가 들 때 대문, 중문, 곳간문, 방문이나 대들보에 ‘春到門前增富貴(춘도문전증부귀)’, ‘春光先到古人家(춘광선도고인가)’, ‘立春大吉(입춘대길) 이나 ‘立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 ‘國泰民安 家給人足(국태민안 가급인족)’ 등 입춘방을 써 붙여 복을 빌기도 한다.

특히 입춘 전후에 받아 둔 빗물을 입춘수(立春水)라고 하는데 이 물로 술을 빚어 마시면 아들 낳고 싶은 서방님의 기운을 왕성하게 해준다고 했다. 또 입춘 때는 농사의 풍년을 비는 선농제(先農祭)를 지내기도 했다.

입춘날에 먹는 시절 음식으로 오신채(五辛菜)라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매캐한 모듬나물이란 뜻인데 시대에 따라, 지방에 따라 오신채의 나물 종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파, 마늘, 자충이, 달래, 평지, 부추 그리고 미나리의 새로 돌아난 싹이나 새순 가운데 다섯 가지 나물 즉, 노랗고 붉고 파랗고 검고 하얀색의 나물을 골라 무쳤다. 오신채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느끼는 다섯 가지 괴로움, 맵고 쓰고 쏘는 등 인생오고(人生五苦)를 오신채를 먹음으로써 참으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맘 때면 절에서는 가정의 복덕을 기리는 입춘 삼재기도를 올린다. 삼재(三災)란 흔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난을 말한다.

민속적인 입장에서 삼재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찾아온다는 불길한 운세를 말한다. 이는 중국의 오행(五行)사상에 기인한 것으로써 소위 십이지(十二支)를 셋씩 묶어 3년 동안 나쁜 운이 돌아올 때를 삼재에 들었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운이 12년을 주기로 아주 좋은 운과 아주 나쁜 운이 각 3년에 한 번씩 온다는 것이다.

이 중 나쁜 시기에 접어드는 것을 흔히 들 말하는 삼재라고 한다. 재앙이 들어오는 해, 머물러 있는 해, 물러가는 해를 3년

단위로 해서 12년 동안에 반드시 한번은 삼재가 들어 있는 해가 된다. 3년 중 첫째 해가 들 삼재, 둘째 해가 늘 삼재, 셋째 해가 날 삼재가 된다. 을미년인 올해는 날 삼재이다.

불교에서는 삼재를 수재와 태풍, 화재의 세 가지의 재난을 부르기도 하고 또 삼재를 소삼재(小三災)와 대삼재(大三災)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 불교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삼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삼재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듯이 항상 착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입춘 불공법회는 민속적인 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불교적인 의미가 더 강한 면도 있다. 입춘은 봄의 시작이자 새로운 일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먹듯이 입춘불공기도에 동참하여 일년을 거뜬하게 살아갈 원력을 쌓고 삼재팔난을 막아 행복의 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법왕사 소식

법왕사 7층 석탑 불사 봉안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법왕사 광장에 봉안하는 7층 석탑 불사를 입재하였습니다. 가람에는 금당과 탑이 갖춰져야 여법한 도량의 면모를 갖게 되는만큼 법왕사에서 5천평 너른 광장에 종합복지관 규모에 걸맞는 7층 석탑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이날 법회에는 법왕사 신도 200여 명이 동참하여 불사의 조기 원만회향을 기원하였습니다. 불심 깊은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화반 개강, 매주 화요일 강좌 열어

법왕사에서는 불화 무형문화재인 석하 최윤석 선생을 강사로 초빙, 불화반을 문화강좌의 하나로 개설하였습니다. 최선생은 문화재 수리 화공 제5346호,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 이수자로 일본 불화와 색채학을 전공하고 대구경북 미협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불화반은 현재 회장 박대숙 보살, 총무 백인숙 보살을 비롯해 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수업합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 거사림 창립, 첫째, 셋째 목요일 법회

법왕사에서는 남자 신도 20명을 회원으로 거사림

을 결성, 새롭게 출범하고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법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의는 주지스님께서 직접 하며 주로 경전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불심 깊은 거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창립법회는 2월 중에 할 예정인데 문의는 중무소 766-3747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성도재일 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27일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성도재일 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어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불자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1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회향하였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하는데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난다고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 기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법회 불교방송에 방영



제28회 백고좌법회 회향법회 상황이 불교방송에서 3회에 걸쳐 방영되어 전국의 불자들에게 법왕사 법회의 진면목을 선보였습니다. BBS 불교방송에서는 지현스님이 집전한 회향법회 전체를 녹화하여 1시간 분량으로 편집, 1월 6일 12시, 17일 12시, 18일 19시에 각각 방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분원 관음사 개원



법왕사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관음사를 법왕사 경기분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관음사가 속한 종교부지 450평과 농지 300여평을 매입, 등기완료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올미년 입춘 삼재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올미년 입춘을 앞두고 삼재기도를 봉행합니다. 올해 삼재에 드는 토끼, 양, 돼지띠 불자들께서는 기도를 통해 삼재를 소멸하고 걸림없는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준비물은 쌀 3되3홉, 묵은 내의 한 벌입니다.

여수에서 선상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28일 토요일 여수 항일암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날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 여수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를 하고 항일암을 참배합니다. 방생물 바다거북은 각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스님 인문학 강좌 개설

법왕사에서는 수년간 지리산 토굴에서 수행, 정진해온 본원스님을 모시고 인문학 특강을 개설합니다. 이번에 개설하는 과목은 불경은 물론, 채근담, 노자를 비롯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채택해 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강의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발급

법왕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보시금을 납부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제출할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명목으로든 사중에 보시금을 내신 불자들은 빠짐없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 동 구 박상근
- 남 구 박진숙
- 가창면 유경희
- 경산시 강미소
- 청도군 이진동
- 서 울 이주영
- 김해시 현지원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 최민우 2000부 김종찬 150부 권영숙 200부
- 최옥남 300부 우수연 100부 최옥남 500부
- 김중항 수덕사 지오스님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 김우영 김만기 박말순 심보현 변선유화
- 김삼곤영가

◎ 과일공양 올리신 분

- 권지현 이정상 류운만 이상훈 이대해국

◎ 떡공양 올리신 분

- 김영웅 이상훈 박종성 박종훈 최성훈
- 류운만 이세정 이태화 정영웅 이영석
- 박해진 전정진행

◎ 물품공양 올리신 분

- 김기수(화장지) 사공순옥(화장지)

- ◎ 향공양 올리신 분
정광춘

- ◎ 도시락 공양 올리신 분
정남희 구실상화

- ◎ 공양물 올리신 분
김인수 신장희

- ◎ 요양원 후원금 내신 분
박경훈 박종성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올미년 1년(가족등) 올리신 분

- | | | |
|---------|----------|---------|
| 40 권무길 | 41 박종연 | 42 변정연 |
| 43 한순복 | 44 박성하 | 45 곽영숙 |
| 46 김외환 | 47 김만기 | 48 김승우 |
| 49 이정란 | 50 장재달 | 51 김유창 |
| 52 김명숙 | 53 여규영 | 54 박경영 |
| 55 정춘화 | 56 양문갑 | 57 양영갑 |
| 58 이희로 | 59 정태중 | 60 김석원 |
| 61 김경환 | 62 금동인 | 63 신광옥 |
| 64 박종민 | 65 박종철 | 66 정창진 |
| 67 신창진 | 68 김기석 | 69 김수식 |
| 70 공기연 | 71 이현자 | 72 권순표 |
| 73 한금복 | 74 조원일 | 75 조춘권 |
| 76 이창식 | 77 도대록 | 78 이용호 |
| 79 이범일 | 80 신종우 | 81 김창득 |
| 82 곽희순 | 83 이대석 | 84 조영석 |
| 85 박정묵 | 86 박영근 | 87 정연국 |
| 88 조기수 | 89 정연식 | 90 정연복 |
| 91 정영미 | 92 류준화 | 93 정연석 |
| 94 이상태 | 95 황광덕 | 96 송홍점 |
| 97 장재달 | 98 장기면 | 99 김창월 |
| 100 장승환 | 101 장백련화 | 102 서영숙 |
| 103 전삼수 | | |

◎ 영가등 올리신 분(복위자)

- 1 이정상 2 전옥남 3 권영숙 4 최준영
- 5 진종원 6 정춘화 7 도대륙 8 김기효
- 9 류윤필 10 박귀남 11 여택동 12 양승욱
- 13 정연국 14 이경생 15 정연욱

◎ 3층 만불전 원불 봉안 하신 분

- 3405 은정기수 3406 은임종심
- 3407 은평상신공 3408 은오현식
- 3409 은이병재 3410 은윤종상
- 3411 김근환 3412 이재복
- 3413 이승민 3414 김분순

◎ 단청등 올리신 분

- 세광하이테크(이정상) 세광금속(이옥진)
- 조병완 치과의원 이연령(경일신경내과의원)

◎ 대등 올리신 분

- 김순조 박정옥 김희항 김범수 장도선
- 박상익 여은주 박범수 청송약수삼계탕
- 경북신경외과

◎ 본당 인등 새롭게 다신 분

- 조현갑 차재민 유광식 구도근 김도훈
- 김민수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 이범일 김잠분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 양금향 영가님의 기제사가 2월 22일에 있습니다.
- ◆ 서규선 복위 달성후인 서주찬 영가의 막재가 3월 15일에 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평생위패 모신 분들

- * 亡업부 월성후인 이종호 亡자모 고성유인 이종삼(이성우 복위)
- * 亡업부 재량후인 이병재(이승빈 복위)
- * 亡업부 밀양후인 박무웅 亡자모 김병유인 김일분(박상경 복위)
- * 亡조모 청송유인 심학순(최대영 복위)
- * 亡조부 밀양후인 박점환 亡조모 의성유인 김복주(박희수 복위)
- * 亡업부 밀양후인 박영하 亡자모 의성유인 김복경(박희수 복위)
- * 亡업부 김해후인 김삼곤(김종태 복위)
- * 亡업부 진주후인 류정모(류병현 복위)
- * 亡외조부 김해후인 김명용 亡외조모 월성유인 최송귀(김은환 복위)
- * 亡업부 인동후인 장율석 亡업부 인동후인 최월애(장성수 복위)
- * 亡업부 전주후인 이기범(이강원 복위)
- * 亡고모 남원유인 양금향(양승욱 복위)
- * 亡업부 우봉후인 이병덕(이주영 복위)
- * 亡백부 김해후인 김춘수 亡업부 김해후인 김달수 亡동생 김해유인 김씨(김영웅 복위)
- * 亡수자령 동남동녀 2위 영가 亡수자령동생 3위 영가(김정윤 복위)

결혼을 축하합니다

- ♡ 김옥희 신도님의 장녀 서미경 양의 결혼식이 2월 7일에 열립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촉탁의사 진료 및 의료 상담

오늘은 촉탁의사 선생님이 방문 하시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체크와 전문적인 의료상담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늘 힘써 주시는 촉탁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작업치료 프로그램

작업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놀이활동을 통해 평소에 안쓰던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 기능을 증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활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생신 파티

이번 달에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의 생일파티가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리고 강봉자 어르신, 유세모 어르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 써포터즈봉사단 도움으로 영화관람

2015년 써포터즈와 함께 하는 첫 야외 나들이는 대구스타디움 CGV로 다녀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옛 생각에 잠겨어 한참을 울다 웃으신 어르신들! 영화 잘 보고, 맛있는 점심식사로 마무리한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박희조, 조경미(기타 봉사)
김명희(미술심리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사랑의 봉사밴드단, 써포터즈 봉사단,
참사랑공연단, 동그라미 예술 봉사단,
이·미용 봉사(무궁화미용학원)

| 학생 정기봉사자 |

이승은, 김민지, 유혜영, 신지원, 박성민, 신지현
이지인, 이미소, 오윤경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립니다)
문의 총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범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범왕사

가창 삼성병원 20m 스파밸리 냉천골프장
 청록모래 필조연구실 200m 가창원맞은편 (구)청용식당
 제2해오름 요양원

가창원맞은편 (구)청용식당
 전화: 766-2747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2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선희 1만원	채수인 5천원	권계화 1만원
이남희 1만원	신화식 1만원	류금자 1만원
조인성 5천원	채옥연 5천원	김순란 3만원
민주현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경자 5천원
배수현 2만원	권명원 5만원	손말두 5천원
현종열 1만원	신창호 5천원	오난옥 5천원
홍유식 10만원	황준원 1만원	이유태 1만원
석중순 1만원	이점례 1만원	이종희 5천원
박재후 1만원	박계옥 1만원	박희조 5천원
김민주 1만원	안경순 1만원	허유미 5천원
이정연 5천원	최윤희 5천원	김정순 3만원
강소남 5천원	황지영 5천원	정태교 5천원
이정화 1만원	안상준 2만원	김정희 1만원
최창숙 5천원	이복희 1만원	이현기 1만원
신구자 5천원	강신규 5천원	황상옥 2만원
강동균 1만원	신진우 1만원	이병희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장호주 5천원	황병숙 5천원
최경미 1만원	신돈식 1만원	박태숙 5천원
정선옥 5천원	송정숙 5천원	김상철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현우 1만원	조정자 5천원
권기정 5천원	김순연 5천원	윤광숙 5천원
김유진 1만원	남기웅 1만원	김태운 1만원
권오국 1만원	김원형 3만원	김수라 1만원
박차민 5천원	장승대 1만원	권기철 1만원
조영석 1만원	이은주 1만원	장성규 5천원
송민경 1만원	임예숙 1만원	고선영 1만원
최분규 1만원	김미자 1만원	정병태 1만원
윤정연 1만원	김승환 5천원	유명옥 1만원
강유미 1만원	유희연 1만원	배운주 1만원
박명숙 1만원	양나영 5천원	도화순 5천원
김태균 1만원	황학영 1만원	김예분 1만원
문정애 2만원	장재혁 5천원	이현옥 1만원
신수희 1만원	박정옥 1만원	신혜경 5천원
양봉훈 1만원	김희창 1만원	김미정 1만원
이호동 5천원	류윤만 1만원	권영희 1만원
여형교 1만원	박성숙 5천원	박순영 5천원
노귀자 5천원	이정희 5천원	김성의 1만원
정옥수 5천원	이정옥 1만원	이재봉 5천원

이옥자 5천원	임익근 1만원	김기덕 2만원
권영철 5천원	박남희 1만원	김진현 5천원
최경순 1만원	인명희 1만원	김정규 5천원
장진근 1만원	박동규 5천원	권봉자 3만원
황미선 2만원	이전희 5천원	송지은 5천원
금강사 2만원	여택동 5천원	정무시 1만원
홍유식 5천원	전숙희 1만원	신진숙 1만원
곽순복 2만원	김정임 1만원	김우영 1만원
김영호 5천원	이은경 1만원	성외련 2만원
권숙자 1만원	김경환 1만원	조일훈 1만원
우지선 1만원	고연숙 1만원	이임숙 2만원
강희정 5천원	김용태 1만원	이성환 5천원
강선옥 1만원	현영희 1만원	이명희 1만원
반룡사 1만원	김진성 1만원	현인숙 1만원
조성자 5천원	서규하 2만원	심종순 5천원
이정훈 1만원	정경숙 1만원	정활수 3만원
노수정 1만원	권순복 1만원	장호식 2만원
임상덕 1만원	강영도 2만원	권순영 1만원
신세호 1만원	김임태 5천원	김경호 1만원
권순미 1만원	박미경 2만원	정시영 1만원
백옥수 5천원	권순칠 1만원	이승미 1만원
권보형 2만원	정경석 2만원	서지경 1만원
이용옥 1만원	홍세림 1만원	정옥선 1만원
이채원 1만원	김대현 5천원	홍세미 1만원
진봉희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외환 1만원
한규매 5천원	이길영 1만원	박성림 1만원
박순남 5천원	정연이 5천원	박귀분 1만원
한유자 5천원	권명진 1만원	조규인 1만원
엄세비 1만원	이정순 5천원	정순옥 5천원
오금옥 1만원	성승길 1만원	함민주 1만원
정대영 1만원	박대희 5천원	한희록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영희 5천원	이인순 5천원
권영희 1만원	정명선 2만원	정운현 5천원
김봉숙 5천원	박병준 1만원	최영희 1만원
김은주 1만원	사공관 2만원	김형택 2만원
우포정사 1만원	시명스님 5천원	이혜예진 5천원
용마 관음사 3만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3만원

합계 2,330,000원

◎ 지출내역

- 식재료비	1,100,000
- CMS자동이체	88,000
- 기저귀대금	1,851,500
- 가스대금	500,000
- 손소독디스펜서	165,000
- 차량주유비	100,000
- 쌀구입	500,000
- 요양원사진현상	43,300
- 물품구입비	24,960

12월 총 사용내역 4,372,76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CMS 신규 신청자

이대석 (2구좌) 금명섭 (1구좌) 김흥주 (1구좌)

후원물품 보내신 분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밀감 1box

이선휘 어르신 보호자

: 밀감 1box, 사과 1box, 감 1box, 바나나 1box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찐빵, 만두, 20개, 야쿠르트 45개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김일순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box

최속자 어르신 보호자 : 주스 1box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꿀 1box, 바나나 1box

차수학 어르신 보호자 : 보리빵 2통

김순란 보살 : 과일 3만원 상당

장어와 미꾸라지 : 추어탕 50인분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박영화 어르신, 장무식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강선휘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을미년 입춘·삼재 풀이 대법회

〈토끼, 양, 돼지〉〈날삼재〉

법왕사에서는 을미년 입춘을 맞이하여 입춘삼재 풀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올해 삼재에 드는 띠는 토끼, 양, 돼지띠로 기도를 통해 삼재를 풀어 걸림 없는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월 4일(입춘) ~ 3월 5일

🌸 준비물 쌀 3되 3홀, 나이수만금 동전, 묵은 내의 한벌



정초 기도 법회

2015 을미년 한해, 서원을 세우고 조상님의 천도를 기원하며 정초기도를 올립니다.

정초 7일 기도

입 재 2월 21일(토) 회 향 2월 27일(금)
동 참 5만원 설 판 20만원

정월 조상천도재

입 자 2월 27일(금)
동 참 영가 10위 10만원



본원스님 인문학 강좌 개설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3일부터 90일 동안 본원스님을 모시고 다양한 고전을 통해 인문학 정신을 배우는 인문학 강의를 개설합니다.

- 개강: 2015년 1월 3일
- 시간: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
- 강사: 본원스님
(지리산 토굴 6년 정진)

- 1강 발심장
- 2강 택리지
- 3강 수심결
- 4강 코란
- 5강 채근담
- 6강 육조단경
- 7강 노자 및 장자
- 8강 법구경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다도

-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약력 : 청화다례원 원장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불화

- 강사 : 석하 최윤석 선생님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4호)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합창단

- 강사 : 정무시 선생님
- 약력 : 영남대학 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 없음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 매주 목요일
- 회비 : 3개월 20만원(재료비 별도)

사물놀이

-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시간 : 매주 목요일

꽃꽂이

- 강사 : 승혜님(비구니)
- 시간 : 매주 월요일

청정 지역 청송에서 100% 순 우리 콩으로 빚은 간장·된장 재래식 전통 비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으로 빚은 메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메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에서 재배하고 가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입니다.



간장 2만원
된장 3만원



구입문의 053-766-3747, 9088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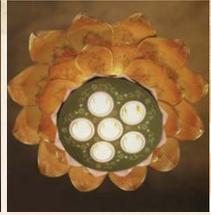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 불구 보시 모연문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법당용 6봉 연등, 법당 연합등, 향로 촛대 세트

불사하신 분

구연근 한순복 박병윤 김옥성 배영민 남학형



LASTELLA
WEDDING

토탈웨딩 라스텔라 수성점 / 동성로점

토탈웨딩
공연&파티드레스
메이크업&헤어
네일&속눈썹
다이어트&스킨케어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28길 7-4 lastella
대구시 중구 공평동 82-2 3층 lastella
T 053) 431-0000 F 053) 256-0000
blog.naver.com/lastella777

법왕사 1인 1원불을 모십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 줄기에 자리잡은 법왕사는 비록 창건 역사는 짧지만 삼한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정통을 이어온 신라 불교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성지인 영남,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과 쌍벽을 이루는 비슬산의 정기는 영남 불교의 거대한 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성에 걸맞게 법왕사는 1백분의 스님을 모시고 1백일 동안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28회나 봉행하여 법문과 기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여 현재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1천평, 4층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4층에는 대적광전을, 3층에는 만불전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다' 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불전에는 법왕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인 일원불을 모실 수 있도록 원불을 모시고 있으니 불차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애망원, 애활원, 송원아파트, 법왕사, 우회도로, 공사중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
| 신 장 회 |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천일기도회 |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주지스님 집전 | | |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근본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개강은 2015년 3월 중에 하며 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중급반	영일스님	근본불교(남방불교, 소승불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 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등)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사경반	주지스님	법화경, 금강경, 지장경 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